



웹 심슨이 3일(한국시간)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역전 우승을 일군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피닉스(미 애리조나주) | AP뉴시스

웹 심슨 연장 역전드라마 PGA '피닉스오픈' 정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약 87억 원)에서 웹 심슨(미국)이 연장전 끝에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3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스코츠데일의 TPC 스코츠데일(파71·7260야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최종 4라운드에서 16번 홀까지의 승자는 토니 피나우(미국)였다. 16언더파 단독 1위로 출발한 피나우는 8번 홀에서 보기를 했지만 12~13번 홀 연속 버디로 1타를 더 줄였다.

1타차 2위로 챔피언 조에서 함께 경기한 심슨은 전반 버디와 보기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후반에도 10번 홀에서 버디를 했지만 15번 홀 보기로 다시 주저앉았다. 17~18번 홀을 남겨두고 2타차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다. 심슨은 파4 17번 홀과 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하며 2타 차를 단숨에 지웠다. 17번 홀에서는 왼 손에 성공한 뒤 쉬운 버디를 했다. 18번 홀에서는 5m 버디 퍼트가 홀을 향해 굴러갔다. 피나우에게도 우승의 기회는 있었다. 투 손에 성공해 2.7m 거리의 버디퍼트를 남겨뒀다. 하지만 우승 부담감에 버디퍼트는 홀을 살짝 빗나갔다.

결국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두 사람은 18번 홀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기세가 오른 심슨은 투 손에 성공한 뒤 4m 거리의 버디로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첫 우승이자 PGA투어 통산 6승째다. 우승상금은 131만4000달러(15억7000만 원).

65타~66타~70타를 치며 공동 8위로 출발했던 안병훈(28·CJ대한통운)은 2개의 버디와 3개의 보기로 1타를 잃으며 합계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했다. 순위는 전날보다 한 계단 내려간 공동 9위였다. 초반에 2타를 줄이며 역전우승의 꿈도 잠시 품었지만 6번 홀 보기로 주춤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퍼트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시즌 4번째 톱10 진입이다. 임성재(22·CJ대한통운)는 1타를 줄이며 합계 8언더파 276타로 공동 34위를 했다.

김종진 기자 marco@donga.com

'부상자 속출' 선두권 3팀, 희비 엇갈린 검진결과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SK 최준용이 2일 전주 KCC와의 원정 경기 도중 무릎 부상을 당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다. 최준용은 회복까지 8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KGC·DB “휴~”...SK “이럴 수가”

KGC, 브라운 8일 삼성전 복귀 가능성
DB, 윤호영 손목·허웅 발목 부상 경미
SK, 김선형 4주 결장·최준용 인대 파열

전망이다. 3일 일제히 부상자 체크에 나선 세 팀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한숨 돌린 KGC

KGC는 1일 울산 현대모비스전에서 가드 박지훈(25·184cm)이 무릎 부상으로 2일 DB와의 경기에서 결장했다. 그런데 DB전에서 외국인선수 브라운(35·193.9cm)이 불과 1분여만을 뛰고, 상대 선수의 발을 밟으면서 왼쪽 발목을 빼었다. 브라운은 코트로 돌아오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 다행스럽게도 둘 모두 부상이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나 KGC는 한숨을 돌렸다. KGC 김성기 사무국장은 “검사 결과 다행히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팀 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8일 서울 삼성전까지 시간이 있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행 중 다행 DB

DB는 1일 SK전에서 윤호영(36·196cm)과 김태술(36·180cm)이 나란히 부상을 입었다. 윤호영은 손목, 김태술은 햄스트링을 다쳤다. 2일 KGC전 2쿼터 도중 허웅(27·185cm)이 시즌 초 반 부상을 입었던 발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더 이상 뛰지 못했다. 기존 부상자였던 김현호(31·184cm)까지 포함해 4명이 전력에서 이탈했다. 3일 검사 결과 윤호영, 김현호는 부상이 경미해 5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와의 원정경기에 팀과 동행하기로 했다. 김태술과 허웅은 원주에 잔류한다. 김태술은 약 2주간 뛠 수 없다. 허웅은 발목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증이 있어 휴식이 필요하다.

●가장 타격이 큰 SK

부상자로 인한 타격은 SK가 가장 크다. 1일 DB전에서 김선형(32·187cm)과 안영준(25·195cm)이 각각 손등과 어깨를 다쳤다. 둘이 전력에서 제외된 2일 전주 KCC전에서 최준용(26·200cm)이 왼쪽 무릎을 다쳤다. 세 명 모두 정밀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

김선형은 오른쪽 손등 골절로 회복까지 3~4주 가량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준용은 왼쪽 무릎 내측 인대 파열이 확인돼 회복에만 8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안영준은 큰 이상이 없지만 통증이 계속돼 복귀 시점이 미지수다. 확고한 주전 3명이 전력에서 이탈한 SK는 A매치 브레이크 이전에 3경기가 예정돼 있어 우선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BL 외인교체 대란, CBA 틈새 공략해볼까 (중국프로농구)

우한 폐렴 여파로 중국리그 중단
일부구단, 검증된 자원 영입 타진



현대모비스 오카포(가운데).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5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트레이드 마감일(4라운드 종료·1월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각 구단이 전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선수 교체뿐이다. 최근 외국인선수 교체를 단행한 서울 삼성(델로이 제임스-제임스 톨슨), 부산 KT(알 쏘튼-앨런 더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안양 KGC의 경우, 크리스 맥컬러(25·208cm)

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덴젤 보울스(31·208cm)를 영입해 공백을 채웠다.

울산 현대모비스도 교체가 불가피하다. 센터 에메카 오카포(38·208cm)가 지난달 30일 원주 DB와의 경기 도중 무릎을 다쳤다. 오카포는 3일 병원에서부터 왼쪽 무릎 내측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회복까지는 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현대모비스는 잔여일정을 함께할 새 외인 찾기에 혈안이다.

준수한 기량의 새 외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해외리그도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당 선수가 KBL에 오길 원한다고 해도 현 소속 구단의 승인 없이는 영입이 어렵다. 그렇다고 소속 팀이 없는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이 가운데 중국 틈새시장이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프로농구(CBA)는 우한 폐렴 여

파로 리그가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개될지 기약이 없다. CBA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선수들은 계약중단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일자리가 필요하다.

CBA에는 다수의 미국프로농구(NBA) 경력선수들이 있다. NBA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뛰기에 충분한 기량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실제로 NBA와 유럽 명문 구단들은 CBA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오카포 교체가 불가피한 현대모비스 외에 전력 보강을 원하는 몇몇 국내 팀도 CBA를 주시하고 있다. A구단 감독은 3일 “CBA에서 뛰는 선수들의 몸값이 높지만, 당장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연봉으로도 영입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보이스 포 KBL'...소통의 문이 열렸다

16일까지 2주간 팬들 의견 수렴
심판부장 등 좌담회서 질의응답

KBL이 팬들과의 소통 강화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2020 2차 'VOICE FOR KBL'을 진행한다.

KBL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KBL 홈페이지(www.kbl.or.kr)를 통해 팬들

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설한 의견을 가진 팬을 별도로 초청해 좌담회를 갖는다.

이번 2차 'VOICE FOR KBL'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운영 및 제도 이외에 심판 판정, 홍보, 마케팅 관련 사안을 주요 주제로 의견을 받는다. KBL은 이번 시즌 전반기 운영과 지난달 1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진행된 올스타전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기다리

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통'이다. KBL은 과거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리그 운영, 제도 개선 등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판정과 같은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노출을 꺼렸다.

2018년 이정대 총재 취임 후 집행부가 개편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VOICE FOR KBL'은 대표적인 움직임

중 하나다. 팬과 만나는 'VOICE FOR KBL' 좌담회에는 KBL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심판부장 및 각 부서 팀장이 참석해 팬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에 응답한다.

KBL 관계자는 “좌담회는 참석하는 팬도, KBL도 만족도가 높다. KBL은 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의견 중 몇몇은 이번 올스타전에 반영되기도 했다. 팬들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만족을 보인다. 앞으로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지욱 기자